

김영록지사, 국토부장관 만나 '핵심SOC 현안' 건의

보성·순천간 경전선 우선 착공 등 7건 현안 해결 총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SOC와 신성장 산업 분야 현안 7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영을 적극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전선 전철화와 관련해 "목포~보성 구간 남해안철도 개통시기와 경전선 개통시기의 불일치로 목포~부산을 2시간 20분대로 잇는 고속전철 운행에 상당기간 차질이 예상된다"며 "2023년 남해안철도 개통에 맞춰 경전선 보성~순천구간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광주와 전남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광주~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조성"과 관련해 "내년도 실시계획비 20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의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양영욱/기자

[칼럼] 누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을까



하루가 다르게 수백 가지의 직업이 사라지고 생겨나는 시대적 변화 속에 언제부턴가 심부름이 전문 직업이 되는 세상에 도래했다. 말이 좋아 물류다 택배다. 하지만 내용은 심부름이다. 무게, 거리, 내용물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전달하는 자와 받는 자의 입장 차이는 시도 때도 없이 논란의 소지가 생긴다.

하지 않았는가. 수 만 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택배시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역지를 쓰거나 불편을 초래할 환경을 줄여주는 것이 함께 사는 사회, 서로 돕는 이웃이 되는 길이다. 최근 배송 업무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진 택배노동자 김원중 씨의 추모는 남다른 애정 차이는 시도 때도 없이 논란의 소지가 생긴다. 필자가 오래전 읽었던 책의 내용 중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이카기에 우편배달부의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덕암김근식

9개월 만에 사천~제주 하늘길 다시 열린다

경남남도는 지난 9월 25일 사천~김포 간 취항에 이어 하이에어에서 오는 12월 5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하루 2회 사천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밝혔다.

김포 간 노선은 화·수요일을 제외한 주 5일에 걸쳐 왕복 20편의 정기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초기 탑승률이 60%대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90%에 육박하는 높은 탑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강인규 나주시장, 코로나 지역감염 관련 담화문 발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 보건인력·장비충원 등 위기극복 총력

강인규 나주시장은 26일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가 금지되며 학교 등교 시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한다. 카페,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외에도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김영만/기자

Advertisement for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featuring various fresh produce, a traditional Korean gift ba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Yeongyang-gun.



# 서울시 하수악취 민원 강남구 '최다'. 지난3년간 460건 신고

### 김태수 의원, "악취유발 주요 원인 황화수소 제거에 대한 꾸준한 연구 필요"

정화조와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조사됐다.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하수악취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83건, 2019년 1833건, 올해는 9월 현재 1446건이 서울시응답소를 통해 접수됐다. 이는 매일 약 5건이 접수된

셈이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은 460건이 접수됐다. 이어 관악구 315건, 강동구 297건, 영등포구 290건, 동작구 280건 순으로 나타났다.민원이 가장 적게 접수된 자치구는 종로구다.종로구는 지난 3년간 103건이 접수됐다.이어 도봉구 115건, 구로구 116건, 금천구 127건, 용산구 135건으로 각각 집계

됐다.서울시는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종합평가는 시설설치 및 개선분야 하수도 관리 점검분야 홍보 및 교육분야 기타, 하수악취 민원 저감과 하수악취 저감 우수사례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 13개 지표를 토대로 하수악취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그 결과 올해 하수악취 민원 21% 감소 효과를 거둔 강동구가 1위를

차지했다.이어 은평구·서대문구, 서초구·관악구, 도봉구, 송파구, 동작구·성북구, 영등포구 순으로 나타났다.김태수 의원은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하수악취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하고 "정기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악취유발의 주요 원인인 황화수소 제거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악취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 지방의대에 강남 출신지역인재 방지하는 '허위지역인재방지법' 발의

### 강민정 의원,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한 지방의대에 허위 지역인재 입학을 방지하는 법률안 발의.

강민정 의원이 26일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를 강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강민정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를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그 비율을 지역에 따라 20% 또는 30%로 규정하고 있음"을 짚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의과대학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2020학년도 기준 의과대학 중 4개 학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그 원인은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자사고 등 해당 지역의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타지역 출신자로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왔던 것에 있었다.이 밝혀지기도 했다.실제로 강민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 중 4개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타 지역 출신 학생이 입학했고 그 사례 또한 2018학년도 5명에서 2020학년도 41명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해당 지역 출신 합격자도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한 특정 도시지역에서만 집중되어 최근 3년간 도시 지역 출신 학생의 지역인재전형 합격 비율은 의사 수가 부족한 소외지역에 비

해 인구수 대비 21.9%p나 더 높았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과대학 등에 대한 우수인재 선발 요건으로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더욱 한정하고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경만, 김영배, 민형배, 양경숙, 양정숙, 옹혜인, 이성만, 최강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최만식/기자

# 교육과정운영시 소수자,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구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추경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어 나갔다.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클러스터, 기초학력책임제, 문화예술교육, 유아교육, 학교폭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황진희 의원은 "고교학점제, 교과중점학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해 일선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경기교육의 지향하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과목선택권확대, 교사역량강화, 효율적인 평가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외국인 자녀의 유아학비지원과 관련해 경기도내 6개의 지자체가 교육청과의 매

정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관련조례가 마련됐다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이날 심의에서는 교육과정클러스터 운영과 관련해 신청학생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과정의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 인정도서 개발에 대한 관심 제고 도박예방교육조례 제정 이후 관련 교육과 홍보 등 후속조치 노력 사이버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추진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전담지원 조직이 없는 교육청에 대한 대책마련 기숙형학교에 대한 적극적 지원 K-에듀 플랫폼 구축시 경기도교육청의 주도적인 노력 등에 대한 다양한 심의가 이루어 졌다.정운경위원장은 영여회화전문강사 정기상여금이 15만원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공무원신분이 아니더라도 소속직



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예술꿈사다리 사업, 위기학생지원, 자살예방 사업 등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소수자, 약자, 취약계층, 학교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교육기획위원회는

3일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및 단과과,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직속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황진희 의원, 임채철 의원, 박덕동 의원, 김은주 의원, 김우석 의원이 위촉됐다.

이성을/기자

# 충남형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모델 완성 '성큼'

### 도의회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남북교류협력 모델 완성에 한발짝 더 내디뎠다.충남도의회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모임'은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용역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연구결과 보고 질의응답과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전지훈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로부터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 현황, 국내 사례분석 등을 청취하고 조례 제개정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오인환 의원은 " 그동안 여섯 차례의 연구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었다"며 "향후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때 우리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결과물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구모임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실질적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책 제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 황대호 의원, 비정규직에 칼날 드리우는 도교육청의 불합리한 행정 질타

### 도교육청, '타 비정규직에 미칠 영향 고려 복지 어렵다' 궤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25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비정규직 교육공동체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노동위원회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3억8,450만원이라는 상당한 이행강제금을 지출하면서까지 이들에 대한 복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도교육청의 불합리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황대호 의원은 "2015년 조등보육전담사로 근무하던 한 계약 근로자는 당시 근무형태가 주 오후 2시간 근무인지 오후 3시간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된 사례"고 소개하며 "도교육청에서는 '주 오후 3시간 미만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한다'는 당시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주 오후 2시간 근무자로 임의 간주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후 해당인이 제기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황대호 의원은 "하지만 도교육청은 계속해서 주 오후 2시간 근무를 주장하며 해당인에게 다른 초등학교로의 복지 명령을 내는가 하면, 해당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한다고 요청하자 법령지 초등학교에서는 무단결근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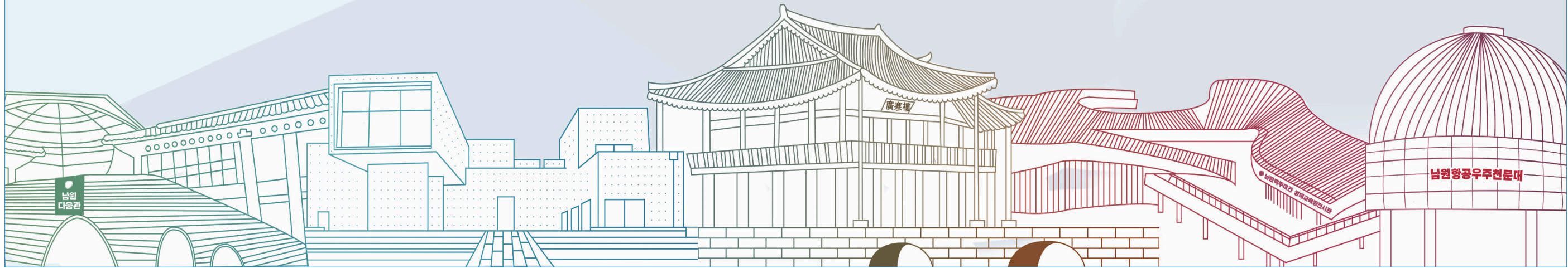
는 사유를 들며 또다시 부당한 해고가 이루어졌다"며 "이후에도 도교육청은 해당인과의 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으며 이제는 민사재판에서 행정재판으로 소송을 변경하면서까지 승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황대호 의원은 "해당인을 주 오후 2시간 근무자로 복직시키게 되면 현재 적용되는 근무시간 기준에 따라 주 20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지만, 주 오후 3시간 근무자로 복직하게 되면 주 30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주 오후 3시간 근무자로 인정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이행강제금과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패소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과 임금 상당 차액 등, 한 명에 대해서만 1억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이 고문변호사와 노무사들을 이용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경기도 교육 가족들에게 칼날을 드리우는 처사는 옳지 않을뿐더러 이를 위해 3억8천만원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 또한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따진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 강사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칙으로 복직을 통해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만식/기자

##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평택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o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 용산구, 30일부터 청년지음 '만짓 프로젝트' 가동

## 청년들에게 위로를... '만짓 프로젝트' 가동

서울 용산구 청년 커뮤니티 공간 '용산청년지음'이 30일부터 '만짓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된 청년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프로젝트는 치유의 책장 용산청년공방 마음의 정원 3종으로 기획했다. 치유의 책장은 '괜찮은 척하느라 지친' 청년들을 위한 위로의 시간이다.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순현영, 안상현 작가 특강을 이어간다.

강연 주제는 '내면을 위로하는 글 쓰기', '내가 혼자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로 정했다. 순현영 작가는 '이토록 아름다운 나에게', '나는 당신을 편애한다', '순간의 나와 영원의 당신' 등을 썼다. 안상현 작가는 '달의 위로', '달의 고백', '달의 마음' 등을 집필한 시인이자. 참가자는 노트, 필기구를 준비해야 한다. 용산청년공방은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연 내용은 레진아트 열쇠고리 만들기과 크리스마스

스 하바리움 제작이며 별도 준비물은 없다. 최근 청춘 남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레진아트는 레진으로 만드는 공예를 말한다. 하바리움은 특수 용액이 담긴 병에 식물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 실내 장식품으로 활용한다. 마음의 정원은 '청년을 위한 셀프테라피' 과정이다.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MBTI로 보는 나의 심리 상태', '마음사위', '힐링 다이어리' 교육을 이어간다. 구 관계자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 19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만짓 프로젝트에 함께할 수 있다"며 "학업, 취업으로 지친 청년들에게 자기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강좌는 청년지음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 참석 인원을 회차별 10명 이내로 제한하며 필요시 비대면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접수 사이트는 용산청년지음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지난 13일 개관한 용산청년지음



은 구와 청년이 함께 만든 청년 활동 공간으로 면적은 710㎡다. 북라운지, 힐링룸, 미니영화관, 미팅룸, 공유부엌, 커뮤니티홀, 다목적 스튜디오, 전시실 등을 갖췄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연다.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청년지음 첫 사업으로 만짓 프로젝트를 선보인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청년 능력개발, 커뮤니티 지원, 지역 특화사업 등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 동작구, 우리 마을 '예술가의 작업실' 프로그램 실시

다음달 18일까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과 활동 등의 영상을 유튜브로 제공

동작구가 다음달 18일까지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과 작품 이야기를 담은 '예술가의 작업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처음 '예술가의 작업실' 프로그램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축 시각 문화 연구 지역문화 등 5개 분야의 예술가의 작품 의미, 세계관 등을 주민에게 소개함으로써 주민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축 시각 문화 연구 지역문화 등 5개 분야의 예술가의 작품 의미, 세계관 등을 주민에게 언택트로 전달한다. 주요 내용은 건축가들이 오래된 상도동 유유 공간을 리모델링해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는 '스튜디오 하숙' 흑석동 상가에서 펼쳐지는 회화와 설치미술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drawing 201 사당동에 위치한 동네 서점과 문학 이야기를 담은 '지금의 세상'이다. 이어 1996

년부터 노랑진에서 많은 공연을 창작한 '극단 배수광부'의 연수 현장과 무대 뒤편에 감춰진 이야기 지역 브랜딩과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는 '스튜디오 씨클레프'의 영상을 제작한다.

제작된 영상은 다음달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동작문화재단 유튜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한, 구는 이달까지 2020 지역문화 예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작, 숨은 예술 찾기'를 진행한다. 관내 아티스트들이 연주·전시하는 품위 있는 교과서 음악회 오보이스 트 연주 러브락 공연단의 동작행복송 동작미술협회 정기전 등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조진희 체육문화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술가를 적극 발굴·지원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광진구,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

민·관·학 TFT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체계 구축

광진구가 지난 26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성과공유대회'에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를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해 지역중심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선정기준은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실적,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관장 관심도 등이며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친화도시'의 영예를 안게 된다.

광진구는 민·관·학 TFT를 구성·운영을 통해 광진구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인재유입 및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확장이전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인지도 향상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인 '세나루'를 개발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이 밖에도, 구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 롯데백화점과 연계한 팝업스토어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은 그동안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애쓴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마포구,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문화비축기지 내 유아숲 체험장에 조성, 인근 도로 발생 미세먼지 저감 효과

마포구는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하는 미세먼지 저감숲'을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내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산업진흥원과 공동협력으로 조성된 마포구의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의 후원을 바탕으로 구북인 단풍나무 및 복자기 40주와 황매화 620본을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 숲을 탄생시켰다.

숲 조성 부지는 문화비축기지 내 유아숲 체험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아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노후가 우려되던 공간이다. 구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이

곳에 공기정정숲을 조성해 자동차 매연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해당 공간의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

특히 이번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하는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종과 배식기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번 숲 조성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도시녹지화 추진으로 건강한 환경 조성 뿐 아니라 민관협력 활성화 및 예산절감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어 의미가 깊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 역점사업인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기업후원금으로 조성된 숲이 더해지면 특별한 의미가 더욱 빛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구 전체를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 강동구 길동주민센터, 35년만에 신축청사로 이전



## 1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 개시

강동구 길동주민센터가 노후 동청사의 신축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새로운 보급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신축된 동청사는 이전 길동 제1·2차치회관을 위치했던 '천호대로 1183'에 부지 면적 848.7㎡, 연면적 2,256.23㎡,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됐다.

건물은 필로티구조로 지하1층과 지상1층 외부는 부설주차장, 지상1층 내부는 통합민원실, 지상2층은 복지민원실과 작은도서관, 지상3층은 자치회관 강의실, 지상4층 대강당, 지상5층 예비군 동대본부 및 옥상정원으로 조성됐다.

아울러 건물 전체에 친환경 저탄소재료를 사용하고 에너지효율등급

을 1++로 강화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시설물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인증 받는 등 주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중정 길동주민센터 청사는 1984년에 지어져 지난 35년간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해왔으나, 공간 부족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신축청사를 건립하게 됐다"며 "새롭게 태어난 길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편의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동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배포, 구 소식지 및 SNS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주민홍보를 지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황규석기자

# 은평구, '숨은 감염자' 찾아 강력 방역대책 추진

동일 세대 가족 간 감염 통한 고연령층의 감염 전파에 주의해야

서울 은평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항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숨은 감염자' 존재 가능성을 고려해 강력한 방역 대책 추진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월 23일 질병관리청은 9월, 10월 입영장병 6,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항체검사서에서 25명의 양성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완치한 10명의 사례를 제외하고 검사 대상자의 약 0.22%인 15명이 항체 보유자라는 검사 결과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 참여자 1,3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체검사서 중 1명이 항체 보유자라는 결과와는 약 세 배가량 차이는 수치가 있다. 11월 초부터 증가 추세에 있던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지난 11월 21일 386명을 달성하며 다시 강력한 방역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정 연령층에서 항체 보유율이 높다는 점은, 재유행 양상의 실마리가 무중상 전파 즉, 증상이 없어 검사도 받지 않은 채로 코로나19에 감염은 되었으나 조용히 지나간 이른바 '숨은 감염자'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행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해당 비율을 전체 20대 인구에 적용해서 산출해보면, 20대 인구수 6,802,784명 중 어림잡아 14,800명이 항체 보유자라고 짐작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은평구에 관내 20대 인구수 6만 7,008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146명의 건강한 '숨은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10월 14일 은평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분석에서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39.5%, 20대 확진자는 11.3%를 차지했지만, 코로나19 11월 재확산 양상을 보인 이후로 20대 확진자 비율이 14.8%, 60대 이상 연령대

33.7%로 20대 확진자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례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20대와 50대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해볼 때, 동일 세대 내에서 가족 간 감염을 통해 고연령층에도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폭증하는 코로나 확산 추이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게 치명적이다. 21일 일본 국내 발생현황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확진 사망자 503명의 94.2%인 474명이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명률 또한 높아진다. 40대 미만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은 10만 1천 100명 중 치명률은 0.5%인 반면 60대 이상 치명률은 19.36%로 급격히 증가한다. 은평구는 관내 코로나19 통계 자료에서 80세 이상 연령에서 25%의 치명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은평구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은 더욱 정교하게 진행 중이다. 은평구는 중고등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접촉 정도가 약하다라도 같은 반 학생이나 입실 교사 등에게 즉각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 스터디 카페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하고 노인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도 선제적으로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고령인구수가 많은 특성을 보이는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손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젊은 층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노인 병원이거나 노인시설 등에 근무하는 20대 주민들의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 서울 X 울란바토르 겨우 2,000km, 자매 25년-문화로 마음을 잇다

국민 엄마 김수미, 인생 첫 라이브 요리 도전, 몽골 사로잡을 '서울식 불고기' 선보여

서울시와 몽골의 울란바토르시가 자매된 지 25주년을 기념해 오는 30일 한국 시각 오후 2시부터 'ON CONNECT SEOUL X ULAANBAATAR' 행사를 개최해 양 도시의 문화를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울과 울란바토르에서 소규모 촬영 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온택트 방식으로 타 국가와 실시간 양방향 소통하며 새로운 해외 문화교류 방식을 시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문화교류행사는 한국과 몽골의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양 도시를 홍보하는 랜선 공연, 토크쇼, 그리고 국민엄마 김수미가 진행하는 라이브 요리쇼까지 다채롭게 구성된다.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몽골 퓨전 밴드팀 'UB DRUMS ASPAC'이 전통 타악 무용 공연으로 문을 열고 이어 흥 주몽한국대사와 에르테루야 남스라이 주한몽골대리대사,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1부는 한국 음악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타악기 명인 '고석진 퍼커션'이 EDM과 국악을 접목시킨 독특한 공연을 선보이며 시작된다. 왕이 서울 곳곳을 잠행한다는 '미복작행' 컨셉으로 꾸며져 여의도 셋방다리, DDP, 경복궁 등 서울의 명소와 야경이 자연스럽게 소개된

다. 이어서 한국과 몽골의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도시 문화 트렌드를 공유하는 토크쇼가 진행된다. 양 도시에서 각각 5명이 참여, 지난 25년간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발전해온 각 도시 문화의 특징을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이야기해본다. 2부는 몽골 아티스트 GANTOGOO의 랜선공연에 이어 이번 행사의 백미로 꼽히는 푸드 콘서트가 국민 엄마 김수미의 진행으로 개최된다.

수미네 반찬, 정글의 법칙 등 각종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수미가 몽골 유명 셰프 MIKO와 음식솜씨를 뽐낸다. 김수미는 이를 통해 몽골에 곧 수미몽골 대중문화 한류가 이어갈 K-FOOD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양 도시의 음식문화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이번 요리쇼는 서울의 쿠킹 스튜디오와 서울ON 스튜디오, 울란바토르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김수미 외에도 가수 박주희, 윤소영 아나운서가 함께한다.



피날레 공연으로 한국 가수 너티츠가 서울숲과 올림픽공원, 한강공원 등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영상을 통해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을 보내고 있는 전 세계인을 위로한다.

마지막으로 유학생을 비롯한 양 도시 시민들의 바람과 소감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끝으로 행사는 막을 내린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울란바토르의 물리적 거리는

겨우 2,000km로 생각보다 멀지 않다"며 "자매도시 2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시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마음만은 이어지길 희망한다. 두 도시의 동포들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 구로구,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9억1,000만원 목표 내년 2월 15일까지 모금 ... 25일 구청 광장에서 온도탑 제막식

구로구가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 구로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2월 15일까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구로구는 매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희망복지재단과 함께 성품, 성금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목표액은 9억 1,00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구 접수계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

시지회)로 성금을 기부하고 구청 복지정책과로 현금기탁서를 제출하면 된다.

쌀, 김치, 이불, 의류 등 성품은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기부 방식도 도입된다. 구청 홈페이지, 각 동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기부전용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모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접수된 성품과 성품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구로구는 주민들의 나눔을 독려하고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25일 구청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김미성/기자

##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사업 장기 발전전략 마련

청년일자리 3만 개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송파구는 문정동 일대가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정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발전전략을 수립, 3개 분야 10개 사업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정도시개발은 논밭과 비닐하우스 스펀이던 문정동 350번지 일대에 대규모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서울 동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시행은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맡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미래형업무단지, 법조단지, 컬처밸리 등이 조성됐다.

2015년 이후 사업대상지 내 기업 입주, 기반시설 개발 등 실질적 이용이 이루어지면서 문정동 일대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인구 유입 효과는 상주인구 약 4천 명, 상시근로자 약 3만명, 일평균 유동인구 약 15만명이며 미래형업무단지 내 입실률 95%로 청년일자리 3만 개 창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기업·직장인 중심의 주5일 상근형에 따른 주말 이탈현상, 신규 산업 육성을 위한 업종 발굴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개선점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지난 10월 말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 신성장동력산업 특화 및 비즈니스 활성화 동남권 문화 예술 허브조성을 통한 복합상권 강

화 교육체계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및 핵심엔지니어링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용역 추진과 도시관리 계획 변경, 사업구역의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지원센터 구성·운영, 송파의 새로운 중심지 도약을 위한 브랜드화 추진, 컬처밸리·탄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확보 등이다. 이중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구는 세부전략으로 '옥의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창의적인 광고물 설치, 구상을 가능하도록 해 문정동 일대를 이색명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동남권 시민청 조성, 컬처밸리 활성화 사업, 송파대로변 문화가로 조성 등 외부근로 유입과 체류시간 증가를 위한 집객전략을 적극 추진해 문화·예술 복합상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이번 중간 평가 결과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적극 건의해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와 지원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2022년으로 예정된 문정도시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된 인프라 구축에서 한발 나아가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해 송파가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 서울디자인재단-이케아코리아, '지속가능한 디자인' 전략적 협업 약속

돌봄 시설, DDP스토어, UD 플랫폼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협업 지속

서울디자인재단은 이케아 코리아와 함께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디자인재단의 비전과 이케아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표방하며 추구하는 '데모크래틱 디자인' 가치를 바탕으로 두 기관이 일상의 공간, 특히 도시 공간에서 사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로 공공의 영역과 민간기업이 뜻을 모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운영하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디자인문화를 확산하는 서울시의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돌봄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고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를 개최

해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전 세계 디자인 문화와 산업을 리드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사용가능한 디자인 철학인 유니버설디자인 체협공간을 DDP에 구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DDP 살림터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라운지 D-숲을 오픈했다. 서울디자인재단과 이케아 코리아는 이번 MOU를 통해 공통된 디자인 지향점을 함께 구현하는 전략적 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케아 코리아 프레드릭 요한손대표이자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상에서도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디자인재단 최경란 대표이사는 "재단은 모든 사업에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전략을 구상해 왔다. 이케아의 모두를 위한 디



자인 철학은 사회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재단과 뜻을 같이한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재단의 비전과 이케아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DDP 디자인 사업과 돌봄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DDP 브랜드 스토어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디자인재단과 이케아 코리아는 업무협약의 시작으로 연말 취약계층 위탁가정 어린이 250명

을 대상으로 '수퍼백나눔행사'를 개최한다. '수퍼백나눔행사'는 이케아 코리아로부터 기부받은 재활용 소재 약 1,000kg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민첩의 보조가방을 제작한다. 이와 함께 재활용교육교재 개발을 통해 어린이 250명에게 전달해 전환사회와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에게 재활용을 실천해보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 서울시50플러스재단-동북권NPO지원센터, '중장년층 사회공헌활동' 공동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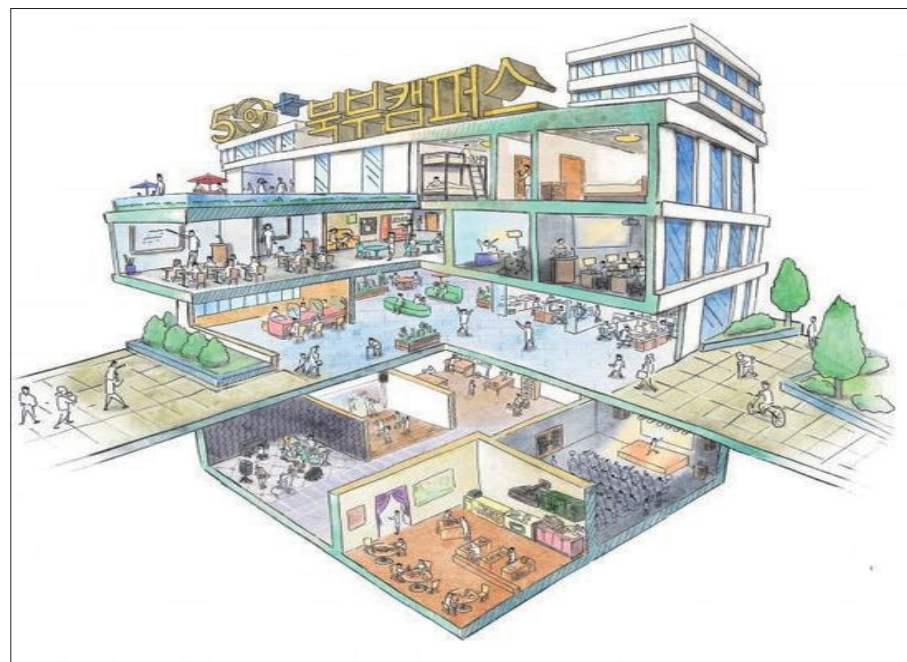
다양한 지역친화형 사회공헌활동 발굴을 위한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자원 협력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동북권 50+세대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생애전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7일 서울시동북권NPO Non Profit Organization :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자율적이고 공익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동북권에 세대융합형 복합시설로 새롭게 만들어진 '창동 아우르네'에 신규 개관하는 북부캠퍼스가 지역민과 공감대를 높인 지역친화형 공익활동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동북권 생애전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됐다.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박영주 서울시동북권NPO지원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동북권 50+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월에는 두 기관의 상호 사업 이해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50+워킹그룹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내년 3월에 개설되는 북부캠퍼스 정규교육과정에 동북권NPO지원센터 시민 활동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동북권 50+세대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 참여와 공익 활동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발굴과 생애전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그간 축적한 각종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교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김영대 대표



이사는 "인생2막을 설계하는 50+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인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중심으로 두고 새로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50+세대의 사회참여가 지역활성화로 연결되는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 주민과 함께하는 '천안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순항

주요 사업 정상추진으로 원도심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 기대감 고조

천안시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1년까지 4년간 마중물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이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을 행복하고 고령친화마을 조성을 목표로 새롭게 변신시키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도심 녹지축 조성, 어르신일자리 복지문화센터 조성,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조성, 접수리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원도심 녹지축 조성사업은 남산공원, 고가하부 공원, 천안천 어린이공원, 원성천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정비사업으로 다음 달 마무리된다.

기존 공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남산공원 사업은 접근로 개선 및 공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천안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도시 텃밭, 광장 등을 설치하고 원성천변 보행로와 연결해 지역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어르신일자리 복지문화센터는 어르신일자리센터, 건강관리관, 공유부엌, 지역주민 카페, 다목적실, 옥상 텃밭 등을 조성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남산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조성 사업은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를 진행해 2021년 3월 착공에 들어가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접수리 지원 사업은 한국해비타트와 협약을 맺고 대상지 선정 후 접수리를 지원했다.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있어 천안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타 시·군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지역 주민 김 모 씨는 "주민협의체 모임을 통해 재생사업 진행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하나씩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남산지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될 것 같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상준 천안시장은 "12월 원도심 녹지축 조성 및 어르신일자리센터가 준공되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주민의 생각을 실현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창원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전 공무원 동원 강력 단속

#### 1.5단계 방역이행 계도 종료... 적발 시 엄중처벌

창원시는 26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창원시 전 공무원을 동원해 위생업소 1만2828개소에 대해 1.5단계 방역강화 이행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창원시에서 코로나 확진자 지속으로 발생해 단계 격상 전 1.5단계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이다. 이는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50㎡이상,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 스타디카페 업소에 대해 1.5단계 핵심 방역수칙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수칙 공통사항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 및 출입자 기록 관리, 출입자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소 내 거리두기, 소독 및 환기에 관한 사항 등이다. 1.5단계 조치로 추가된 핵심방역수칙 유흥시설 3종은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는 1단계 수칙

동일 시설면적 50㎡으로 의무화 확대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최근 단란주점

정몽호/기자

### 광양시, 일회용품 사용 지침 다음달 시행

#### 현 1.5단계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당부

광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자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경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각 업소에서는 고객요구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지역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임을 감안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지도·계도를 할 방침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코로나 19 상황을 이유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 동두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안내

동두천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이동형 CCTV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것으로 발견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해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신청대상은 거주

지와 관계없이 동두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사전동의한 자이며 차량 1대당 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지난 1년동안 서비스 신청자는 8,739명이며 55,786건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한, 기존에는 각 시·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11월 30일부터는 경기북부 5개 시·군 통합서비스로 운영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5개 시·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다만, 스마

트폰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 청송군,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청송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mm 내외의 선충이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 빠르게 증식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나무를 시들어 말게 죽게 하는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공무원 및 예찰조사원 등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및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송군은 앞서 봄철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완료했으며 헬기·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예찰 및 지상 정밀예찰과 소나무류이동단속조소를 운영 중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 '산소카페

청송군'에 걸맞은 깨끗하고 청정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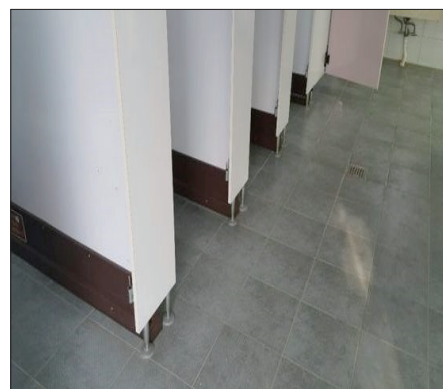
송인용/기자



### 동두천시,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화장실 정비 실시

동두천시는 여성화장실 불법촬영을 차단하기 위해 수변공원 등 취약지역 여성화장실 12개소 46개 칸막이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 최근 성적인 목적의 불법촬영이 급증하고 있어,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에서 옆 칸이 빈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정도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시에서는 옆 칸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 틈을



김영근/기자



### 김포산업진흥원 '동네 기업제품 좋아요 SNS 서포터즈' 모집

김포산업진흥원이 '동네 기업제품 좋아요 SNS 서포터즈'를 오는 12월 9일까지 모집한다.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SNS를 이용하고 있거나 평소 김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으며 기사 작성이 가능한 김포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포터즈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선발된 서포터즈는 SNS 홍보활동으로 김포시 관내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마케팅 및 다양한 판로개척에 앞장설 예정이며 시민이 직접 관내 기업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부터 약 5개월 간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실사용 후기를 SNS 채널에 업로드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사업기간 동안 총 20건의 홍보 기사를 작성할 예정이다.참가자들에게는 위촉장, 우수활동자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며 작성 및 게재된 원고에 대한 월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신청을 원하는 김포시민은 김포시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대상**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 중인 일반시민  
·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본인 SNS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개인블로그 운영자 제외)  
· 평소 김포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며 기사 작성이 가능한 사람  
· 서포터즈 공식행사(발대식 등)에 모두 참여 가능한 사람

**모집인원**  
15명 내외

**모집기간**  
2020.11.24. ~ 2020.12.09.

**활동내용**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제품(무상제공) 실사용 후기를 SNS채널에 업로드  
· 서포터즈 1명당 총 20건의 홍보 기사를 작성(월 4건, 총 5개월간 서포터즈 활동)

**혜택**  
· 재단 서포터즈 위촉장 및 명장제공  
· 작성 및 게재된 원고에 대한 월별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수료증(활동원료지에 한함) 수여 및 우수활동자 표창수여

**신청방법**  
지원서류 작성 후 이메일(gopa@gopa.or.kr) 제출  
(\*파일명 형식: 중소기업 SNS 서포터즈 지원서\_이름)

**신청안내**  
신청자 대상 개별 연락

**문의처**  
(재)김포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070-4269-4083)

김영근기자

### 양주시·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2020년 단체교섭 상견례

양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2020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이번 상견례는 지난해 12월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전환된 후 첫 단체교섭을 위한 자리로 공무원 노사 간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활한 단체교섭 진행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학수 부시장, 이대호 위원장, 최상기 자치행정과장, 노사 측 교섭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단체교섭 절차, 진행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관부서별 실무교섭을 통해 2021년 3월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대호 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제안한 교섭요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한 단체협약의 조기 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조학수 부시장은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없이 공무원이 존재할 수 없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교섭을 추진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에게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 연이은 성과, 평택시 리틀야구단 또 전국대회 입상

지난 전국대회 통합우승에 이어 금번 '제8회 FILA기 전국리틀야구대회' 3위 입상

경기 평택시 리틀야구단이 지난 25일 제8회 FILA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며 연이은 승전보를 터트리고 있다.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주관해 열린 '제8회 FILA기 전국리틀야구대회'는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화성드림파크 리틀야구장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104개 팀의 야구 꿈나무들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지난 25일에 열린 4강전에서 홈런을 주고받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해 3위에 머물렀지만, 지난 U-12 전국

리틀야구대회 통합우승에 이어 올시즌 치러진 3개 대회 중 2개 대회에 입상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전국대회에서 연이은 입상의 성과를 만들어낸 평택시 리틀야구단의 조규수 감독은 "우승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보다는 대회기간 몸을 사리지 않고 팀을 위해 희생하다가 부상당한 선수가 생긴 것이 더욱 안타깝고 감독으로써 자책감이 든다. 성적보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감독의 첫 번째 사명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어린 제자들에게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 평택시의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을 결정해주신 '웨딩 아티움' 측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평택시 리틀야구단 유승영 단장은 "올해 평택시 리틀야구단과 평택시 주니어야구단 단장을 맡아마자 리틀야구단이 우승, 주니어 야구단의 준우승,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리틀야구단이 3위에 입상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도 평택시 유소년 체육발전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다. 그리고 리틀야구단과 주니어야구단의 성과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평택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남주기자



### 부천시, 가정보육어린이 1만명에게 과일 구매비용 지원

12월 11일까지 온라인 접수...경기지역화폐로 1인당 40,500원 지급

부천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보육어린이 1만명에게 국내산 과일 구매 비용으로 1인당 40,500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그림책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공급되던 신선한 과일을 가정보육어린이까지 확대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과일 소비도 늘리자는 취지로 추진된

다.부천시 지원 대상 아동은 1만명으로 경기도 지침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해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기도 거주 어린이가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은 부천시 소재 편의점 중 경기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488개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에 공급되는 과일은 100% 국내산이며 경기도 로고와 우리아이 과일대장 마크가 부착된 과일만 구매 가능하다. 단, 분사 직영점 및 연매출 10억 이상인 편의점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자동 환수

된다.잔액이 남은 경우 현금 및 개인 신용카드 등 합산 결제도 가능하다.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기존 경기지역화폐 가입자는 즉시 신청 가능하며 미가입자는 경기지역화폐 회원가입 후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양육수당 신청 부서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시 담당자는 "그동안 기관에만 공급되어 건강과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보육어린이가 가정에서 신선한 국내산 과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윤화섭 안산시장, 2021년도 시정 운영 방향 제시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해야...민생 중심의 현행행정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는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간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함께하는 산업혁신도시'는 디지털 뉴딜 산업의 선도역할 카카오 데이터센터 착공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운영 지원 미래형 자동차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등 미래를 위한 첨단 산업분야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다섯째 '나눔이 있는 살맛나는 복지·포용도시'는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상 지원 사업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임신부·신생아 '생활안전보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과 함께, 코로나19로 위기가정에 희망일자리제공해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셋째 '바다를 품은 수도권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는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개관 시화호 뱃길 '해수호 생태체험선' 운행 대부광산 퇴적암층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김홍도 테마거리 조성 김홍도의 도시 조례 등 추진을 통해 특색 있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소통·참여도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안산형 지역회의를 발전시키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행정 혁신에도 앞장선다.

◇첫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명·안전도시'는 안산형 방역체계를 견고히 하며 특히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지역사회 안전 대책으로 이뤄져 있다.

윤 시장은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현장 행정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시장의 모든 성과가 시민 여러분에게 돌아가 74만 시민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넷째 '자연과 어울리는 스마트 그린뉴딜 도시'는 안산형 뉴딜사업 발굴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수소시범도시 조성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조성 친환경이동수단보급 확대 역세권 순환버스본격운영 등 안산이 그린뉴딜 허브도시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정부/기자

# 박남춘 시장, 탈석탄 위해 세계와 '맞손' 기후위기 적극 대응 나서

송도 G타워서 인천시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식 개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손을 잡고 석탄에너지 추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이어 탈석탄 동맹 등 연일 이어지는 박 시장의 '친환경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시장은 26일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인천시 탈석탄 동맹 가입 선언식'에서 “오늘이 탈석탄과 탄소중립 사회로 향하는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며 탈석탄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는 '탈석탄 동맹' 주도국 자격으로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

와 함께 영국 대사도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했고 우리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자연은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로 기후위기를 알리고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며 “저도 그 기조에 맞춰 우리 인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30%를 내뿜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LNG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세계 도시들

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인천에는 화력발전소가 있다.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인천시가 탈석탄 동맹 회원이 돼 기쁘다”며 “내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총회가 열린다. 꼭 참석해서 배출가스와 화석연료를 줄이는데 함께 했으면 한다”고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도 “기후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적,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에 리더십을 보여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최종환 파주시장, 대전 통일콜로키움에서 특별강연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남북 간 신뢰의 중요성 강조

최종환 파주시장은 26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경제 및 종교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 통일콜로키움'에서 ZOOM을 활용한 화상 회의 방식으로 참석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번 대전 통일콜로키움은 통일 이념을 고취해 21세기 화해와 상호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남북간 종교 교류를 통한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자 대전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 파주시청, 대순종대학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콜로키움은 세션1의 특별강연과 세션2의 학술대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최종환 파주시장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다. 세션2에서는 이봉호 경기대학교 교수가 '평화와 남북의 해원상생'에 대해 발표를 했고 이어서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가 '북한의 종교와 통일 구상'에 대해 발표를 했다. 각 주제별 발표 후 마련된 패널 토의에는 고남식 대전대학교 교수, 박용철 대전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종합 토론을 펼쳤다.

이날 세션1의 강연자로 나선 최종환 파주시장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파주시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파주시 평화공존 공감대 확산 정책 등을 설명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현재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우리 정부의 강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의지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가치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설명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상 환서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경제벨트가 교차하는 곳이 파주”며 “그동안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으며 희생해왔지만 파주에 '평화는 곧 경제'로 이어져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하여서는 “특구 지정을

위해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거점이 될 평화의 완충지대, 경제의 안전판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의 장소이자 남북경제공동체의 중심지,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한 중심 지역으로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리적·상징적으로 남북교류의 길목이자 통일의 관문인 파주시는 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평화공존 공감대 확산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막바지 현장 점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6일 이석영 선생의 후손인 이종찬 유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내외와 함께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화도읍 진영근린공원 내 연면적 4,877㎡ 규모로 건립되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에 전재산을 바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 이석영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성한 전국 최초 뉴미디어

도서관이다. 수차례 현장점검을 이어가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 온 조광한 시장은 이날도 1층부터 4층까지 꼼꼼히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을 돌격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조광한 시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화도읍의 지역적 특성을 적극 반영해 뉴미디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문화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께 현장을 둘러

본 이종찬 이사장은 “역사에 묻혀있던 이석영 선생의 정신을 되살린 도서관이 선생이 계셨던 남양주에 생긴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이석영 선생의 탄신일인 12월 3일에 맞춰 개관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개관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 #구리시민 덕분에

대한민국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코로나19와 싸우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들, 구급대원들, 자원봉사자들 고맙습니다.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소독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구 한 사람 아닌 시민 모두의 힘이 우리 지역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랑스럽고 고맙습니다.





# 경남도, 11월 26일부터 거리두기 1.5 단계 시행

## 수능 전 감염병 집단발생 확산 저지 방역 총력 대응

경상남도가 26일 낮 12시부터 경남도 전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를 적용한다.

도 생활방역협의회와 자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이번 '거리두기 격상 시행'은 도내에서 최근 한 주간 발생한 확진자 일일평균 수가 14.4명이고 특히 어제 하루 사이에만 역대 최다인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수능 시험 전에 확산 추세를 진정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1.5 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1 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방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 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 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의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신종우도 복지보건국장은 "우리도는 감염병 집단발생 지역에 대해서 강화된 방역조치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각 시설과 장소의 관리자·종사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민들에게도 스스로가 방역주체가 되어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식사를 동반한 모임, 행사 등은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인용/기자

# 변성완 권한대행 "지역사회 감염 차단 위해 적극 협조 당부"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 따른 긴급회의 개최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에 앞서 오는 오후 다중이용시설 업계 관계자, 교통 분야 기관·단체와 연이어 긴급회의를 열었다. 시는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앞서 내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최근 지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연이어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자 선제적으로 방역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오는 오후 1시 50분에는 유흥시설, 외식업, 공동위생단체장 등 12개 단체장과 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변성완 권한대행은 "지금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면 2단계 격상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많은 희생을 감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부산교통공사 사장, 시내·마을 조합 이사장, 개인·법인택시 이사장,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등과 함께 교통 분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비한 교통수단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변 권한대행은 수능·연말연시를 대비해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당부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운수업 종사자는 방역의 롤모델 역할도 해주셔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발이라는 책임감으로 바이러스로부터 철저한 자신을 지켜야 한다"며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며 "모두 힘을 모아 또 한 번의 위기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창원시,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대폭 확대 추진

### 마산합포구 월영동 새뜰마을 등 5개 지구 공모 준비 중

창원시는 내년도에 낙후된 지역의 조속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2021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취약 주거지역의 개선사업인 새뜰마을 공모를 시작으로 5개 도시재생사업의 공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국가 공모사업에는 진해구 경화동에 경화역과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 시설인 주민 어울림센터와 마산합포구 문화동에 LH, 경남대학교와 연계한 중심지가형 재생사업 등 2개소를 내년 5월과 10월경 각각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 공모사업에는 마산합포구 성호동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과 마산회원구 합성1동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의 공모를 내년도 8월경 각각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창원시는 올해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석전주민복지센터 조성사업을 지난 10월에 신청한 바 있으며 이는 인근 근주공원과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지역주민사실로 오는 12월 최종 발표

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창동·오동동 지역에 마산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해 현재는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새뜰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뉴딜사업 등 총 9개 지역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9개 지역은 지역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이 함께하는 지역특성 맞춤형 주거·상업 지역으로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2016년 마산 원도심 활성화로 조성된 부림시장과 광장의 노후화된 벽면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장주변 총 1,600㎡의 벽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67백만 원을 투입해 '부림문화광장 주변 특화벽면 조성사업'을 지난 10월 착공해 오는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공사로 부림문화광장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방문객의 불거리 제공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환경 도시국장장은 "우리는 주민이 주도하는 창원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다시 본 창원형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며 "공모사업 준비와 속도감 있는 재생사업 추진으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 혁신과 적극행정에 팔 걷어 붙인 양산시

양산시는 조직 내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한 선순환의 혁신 및 적극행정 분위기 안착을 통해 시민의 불평은 줄이고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하반기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혁신 우수사례 6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 서면심사, 2차 부서장 투표에 이어 최종 심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 추이에 따라 온라인 국민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036명의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해 대회의 열기를 달궜다. 혁신 우수사례 분야 금상은 교통과의 '부르던 달려간다. 주민위해 달린다'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원동면 늘밭마을과 동면 산지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권역을 정하고 경남 최초로 수요응답형 콜버스 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은 안전총괄과의 '지능형 CCTV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과 자원순환과의 '양산타워 경관조명 활용으로 미세먼지 정보 제공'에 돌아갔으며 이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관리 플랫폼 구축'과 '양산시가 가장 예뻐할 때를 '양산톡톡'이 들려 드립니다', 그리고 '창기마을 활력넘치는 행복 농촌마을만들기'는 각각 동상을 수상하게 됐

다. 적극행정 분야 금상은 공원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시정에 접목해 '시민과 함께하는 양산'을 실현하다'로 공원 내 단순하고 획일적인 벤치를 초등학교의 눈높이에서 상상력이 더해진 독특한 모양으로 스케치한 의자를 실물로 제작·설치한 '의자공원'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은 시민도서관의 '스마트한 문화생활을 위한 스마트 도서관 개관'과 안전총괄과의 '방범용 CCTV 영상을 활용한 자연재난 신속대응'에 돌아갔으며 그밖에 '야외에서 안전하게 코로나 방역과 지역 경제 모두 UP ~'과 '출생신고의 기쁨을 함께 생애 첫 주민등록등본 및 출생신고 인증 스티커 배부 사업 시행' 그리고 '전국 최초수학체험공원 조성'이 각각 동상을 수상하게 됐다. 양산시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너무 구 굴레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성과를 발굴·공유·확산해 조직 내 자연스러운 혁신 및 적극행정 분위기를 안착시키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발굴해 우수 공무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부산 개최



### 온라인으로 즐기는 대한민국 최초 비대면 청소년박람회

부산시는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최대의 청소년 축제인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여성가족부와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2010년 제6회 행사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라는 주제 아래 박람회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에에 대한 체험과 성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실험적 시도다. 부산시와 여성가족부는 공식행사인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해, 특강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대회프로그램 전시 및 특별 프로그램 부산 특화 프로그램 공모전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익한 체험활동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전홍보프로그램으로

'부산 사투리 퀴즈'를 매주 SNS에 게시하고 정답을 맞힌 응답자에게 주 2회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청소년 700여명에게 10만원 상당의 멘토 특강 시청권을 주는 사연 공모와 더불어, '전부산퀘러지', 'e-스포츠 1:1 랜덤 매치' 등 다양한 온라인 체험 참여프로그램의 사전접수가 시작된다.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홈페이지와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전혜숙 여성가족장은 "올해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분들도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박익석/대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 천주산 등산로 등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허성무 창원시장은 26일 오후 2시 30분 '밤밭고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거제-마산 연결도로 건설사업', '천주산 등산로 진입부 보행데크 설치공사' 등 관내 사업장을 잇따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허 시장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공사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밤밭고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창원시가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현동까지 총 길이 12.9km, 폭 20m의 4차로를 개설하는 공사이다. 현재 심리-유산IC구간은 조기 개통돼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유산IC-현동IC구간도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업들이 완료되면 도로 및 등산로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준공이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 영양군 여성단체협의회, 김장나누기 봉사로 사랑 전해



영양군 여성단체협의회는 26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400kg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양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마다 동절기에 소속 회원들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아 어려운 이웃들과 훈훈한 사랑의 정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웃들을 위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배추다듬기부터 절이기, 씻기, 양념 만들기 등 맞난 김치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버무려

만들어진 김장 김치는 지역의 저소득층 6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반찬조리 및 배달 봉사, 이 외에도 홀로 어르신에게 생신상 차려 드리기, 장학지원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지역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김장김치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차에 정성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를 받으니 이번 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계숙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회원들 모두가 몸은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김장나눔 봉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기 행사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나눔 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영양군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돼 있는 지역상황 속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열의를 만드는 데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김천시 과방령 장원급제길, 합격명소로 부상

김천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합격 기원 명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대항면 향전리의 과방령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방령은 김천시 대항면에서 영동군 매곡면을 잇는 고갯길로 조선시대 영남지역의 유생들이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넘어 다니던 길로서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써 붙인다는 '과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당시 영남의 유생들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추풍령을 넘어 가던 '추풍낙엽'처럼 낙방하고 과방령으로 넘어 가던 장원급제 한다고 해 일부러 과방령으로 시험을 보러 갔다고 한다.이러한 특색있는 이야기를 테마로 과방령에 합격기원 돌탑과 장원급제 스토리보드, 포도존 등을 설치했다.특히 5m 높이의 합격기원돌탑은 수능시험과 같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돌탑 앞 어머니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자식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저절로 느껴진다.또한 직지저수지에서 과방령까지 약4km 구간에 '과방령 장원급제길'을 조성하고 옛날 주막이 있던 자리



에 먹거리와 기념품을 판매하는 '과방령주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천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수험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과방령을 찾는 수험생들이 합격의 기운을 받아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전국 18만 여명이 온택트로 함께 즐겼다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축제문화를 여는 시험무대

영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최기문 시장, 조영제 시의회 의장 및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축제추진위원회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7회 온택트 영천보현산별빛축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랜선 타고 블랙홀 속으로'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17회 온택트 영천보현산별빛축제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축제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축제현장 영상시청, 축제추진결과 보고 향후 발전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된 비대면 문화와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붐에 힘입어 온택트 형식으로 개최된 금년 별빛축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축제문화를 여는 시험무대로서 다중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랜선 방청객 모집, 어린이 골든벨 온라인 예선전,

온라인 주제관 등 새로운 시도를 보여줬고 별과 온라인의 결합으로 무한한 축제 콘텐츠 확장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이날 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축제 공식 홈페이지 및 SNS 개설 시점부터 축제 폐회 후 에필로그 영상 송출기간을 포함한 총 29일 동안 전국에서 홍보 이벤트,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여, 실시간 방송시청 등 직·간접적으로 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18만 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대면 축제로 진행된 작년 축제 대비 250%가 늘어난 인원이 별빛축제로 축제에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금년 별빛축제는 보현산 전문대, 전문과학관 등 보현산 일원의 전문과학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별빛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했으며 영천의 대표 관광지외 체험거리, 문화공연 등을 수준 높은 영상으로 안방에 전달해 영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또한, 이번 온택트 축제 경험을 통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

변하는 축제 환경에 대응한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됐고 지역 관광역량 강화와 지역민 자긍심 고취에도 영향을 줬으며 무엇보다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환경에서 별빛축제를 전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을 얻었다.하지만 온택트 형식으로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불과 2개월 안에 홍보, 기획, 콘텐츠 제작 등이 이루어져 홍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부분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마지막으로 축제추진위원회는 발전방안 토의에서 내년도 축제 추진방식을 기존의 대면 축제에 온택트 축제를 가미한 온·오프라인 병행 축제로 결정하고 금년도 축제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최기문 시장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올해의 축제 추진경험으로 내년 축제를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로 삼기 바라며 '영천보현산별빛축제'라는 전국 대표 브랜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 영덕군,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대상

2019년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영덕군이 '2020년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대상을 수상했다.지난해 공공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영덕군은 상사업비 1억5천만원에 선정됐다.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은 매년 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선도,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체, 민간,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상하는 상이다.영덕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50억을 투입해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 등 에너지 효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특히 올해 10월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되는 등 에너지효율과 절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덕군은 이번 평가에서 항목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회진 영덕군수는 "2년 연속 에

너지효율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스마트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저변확대 및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이룬 성과다.

영덕군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3020'정부 정책에 맞춰 그린뉴딜에 앞장서고 '에너지융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RE100기업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사이소

검색창에 '사이소'를 검색하세요

맛 좋은 빛깔 좋은 영양고추와  
영양고추로 만든 빛깔산 과기류  
검색! 사이소에서 만나요

# 청정 영양 원인

#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소 www.cyso.co.kr  
문의전화 054-683-7300



# 남원시, 교통산성 정비·조사 통해 학술적 가치 재조명

## 전북 최대 규모 자랑하는 복문지 집수시설 발견 등

전라북도 지정 기념물로 제9호로 지정된 교통산성 발굴조사에서 양호한 상태의 복문지와 집수시설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복문지 주변 집수 시설 같은 경우, 가로 12.5m, 세로 10.8m 규모로서 전북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집수시설 내부에서는 방망이 등 가공목이 출토, 당시의 농공구를 알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됐다.

남원시는 26일 교통산성 발굴조사 성과보고 개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적의 접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방어적 차원에서 가치가 매우 높은 교통산성은 백제시대에 쌓았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문헌

기록이나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교통산성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조사에 따라 교통산성 복문지에서 웅성과 1칸의 문루가 있는 개거식의 조선시대 문지와 조선시대 문지 아래 50cm 지점에서 고려시대 부석시설과, 조선시대 문지 아래 80cm 경우, 통일신라시대 문지로 통로부, 방형주철 문축석, 계단시설 등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복문지 주변에서는 석축으로 축조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로 편년되는 장방형의 집수시설이 확인, 성벽 조사를 통해 통일신라, 조선시

대 2차에 걸친 개축 흔적이 확인됐다. 또한 시는 그동안 주민 전연과 지표수습된 철축을 통해 궁고터로 비정됐던 곳의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궁고터 관련시설이 아닌 통일신라~고려시대 초 건물지와 집수시설이 존재함도 확인했다.

건물지에서는 정면 6칸, 측면 3칸으로 초석, 기단, 인방시설, 대규모와적시설도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명문이 있는 기와, 토기류, 자기류 등이 출토됐다. 건물지는 난방 취사 시설이 없고 생활용기가 소량출토되는 것과 '南原', '官' 명문과 등을 통해 관청과 관련된 특수 건물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집수 시설은 통일신라~조선시대까지 사용 후 자연폐기된 것으로 조사됐고 주변지역으로 관련시설이 확장되는 양

상도 보였다. 출토유물에서 백제 기와 제작기술에서 보이는 와도, 승석, 평면형태가 확인, 삼국시대 건물 존재 가능성과 함께 통일신라시기 남원소경의 배후산성으로 중요한 거점산성으로 이용됐음을 발견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교통산성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방어적 차원에서 매우 가치가 높고 주변에 위치한 산성들을 통제하는 거점성으로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산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사적, 학술적 가치로 조명되지 못했다"며 "이번 복문지와 궁고터 주변을 중심으로 한 교통산성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향후 국가지정 사적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익산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익산시는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청렴도 향상과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연 2회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오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된다.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익산시를 이끌어가는 간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부서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솔선수범한 자세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됐다. 평가는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간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대상자는 4~5급 현직 간부 공무원이며 평가지는 상위, 동료, 하위로 구성되며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담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과 솔선수범' 등 내·외부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총 4개 분야, 19개 설문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는 평가 결과를 간부공무원들에게 제공해 스스로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다져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는 부패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청렴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평소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강조해왔고 금품·향음 수수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청렴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감사위원회의 순조로운 준비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익산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 군산, 11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11월 28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전라북도는 오는 28일 0시를 기해 군산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를 시행하기로 협의·결정하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전라북도는 현재 코로나19의 지역유행이 급속한 전파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전주·익산시는 11월 21일부터, 나머지 12개 시·군은 11월 23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군산시는 감염모임을 기점으로 직장과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3~4일 사이 30여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상황의 심각성,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수습시름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고강도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산시 및 중앙안전대책본부와 2단계 격상 방안을 협의하고 결정하게 됐다.

군산시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11월 28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10일간 시행되

며 전국적 확산 시기에 지역유행의 급속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5단계와 달라지는 주요 방역조치로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점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로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 섭취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30%로 사회적시설은 전면 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20%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 주민 혼동방지와 방역수칙 조기 정착을 위해 도와 군산시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하고 군산시 점점 대상시설은 당초 표준점점 30%에서 전수점점으로 확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이미 구성·운영 중인 업종별 민간 자율점검단을 활용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어떤 곳든, 그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가장 강력한 방역"임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특히 "불요불급한 타지역 방문이나 외출, 수습 이후와 연말연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자택에 머물면서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최하은/기자

# 전주한옥마을 옆 벽화마을, 새 단장

## 시, 교통 자만벽화마을 일대서 2020 전주벽화 트리엔날레 열고 온라인 전시회 통해 공개

전주한옥마을 옆 자만벽화마을이 새 옷을 입고 관광객 발길을 붙들 준비를 마쳤다. 전주시는 자만벽화마을 일대에서 '2020 전주벽화 트리엔날레'를 열고 새롭게 단장한 20곳의 벽화를 유튜브 등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주벽화 트리엔날레는 자만벽화마을의 낡은 벽화를 3년 만에 교체한 게 특징이다. 트리엔날레는 3년마다 열리는 미술 관련 행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부터 20명의 예술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벽화를 제작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자만벽화마을은 강창구 작가의 '자작나무숲', 전용훈 작가의 '과라다이스', 로로아트플랜의 '다 잘 될 거야' 등 각각 다른 매력의 벽화들로 채워졌다. 새로 제작된 벽화는 30일부터 자만벽화마을 유튜브 채널과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전시회 영상에서는 벽화 20점의 작업과정을 보고 작가로부터의 벽화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현재 자만마을 벽화 갤러리 모습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일 새 옷을 갈아입은 자만벽화마을을 홍보하기 위해 벽화 메이킹 필름 영상을 자만벽화마을 유튜브 채널에 선 공개했다. 시는 새로운 벽화로 깔끔히 단장된 자만벽화마을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자만벽화마을의 새롭게 변화된 벽화를 온라인으로 감상하시면서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자만벽화마을에 방문하셔서 연인, 친구, 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곡성군,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내년부터 본격 운영

## ICT 스마트온실, 지역특화작목, 대량 미생물 배양장 등 조성 완료

곡성군은 과학영농으로 현장에 기술 해결과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선진농업육성 기술보급의 핵심기지가 될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곡성읍 신월리 181-25번지 일원 12,505㎡ 부지에 지난해 착수해 관리동, 시설하우스 5동,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 지류농업 텃밭정원 등을 설치했다.

시범포는 우리 군의 특화품목 발굴과 농업인 현장 교육을 비롯해 유치원, 초·중학생 진로체험 및 견학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시범포에는 체리, 블루베리, 단감 등 과종별 수습여종을 식재했고 채소류인 딸기, 토란, 단영마늘, 양파 등도 재배시험 중이며 내년에

는 전문가 초청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장으로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2021년까지 연간 400톤 생산 규모의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장을 설치해 친환경농업 확대 및 축사악취 저감에 필요한 농업미생물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1~2022년까지 연면적 990㎡ 2층규모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HACCP 인증 공공이용 가공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역량 있는 가공·창업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판매를 통해 농소득도 확대되는데 기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신소득작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농가소득 증대, 선진농업육성 기술보급 등 과학영농시설을 집적화해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포 단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나주시, 연말연시 나눔과 봉사로 훈훈한 지역 공동체

나주시 동·면단위 마을 주민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문평면 주민 김영욱 씨는 최근 백미 40포를 문평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을 역임 중인 김 씨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강동, 왕곡면 주민들은 새벽잠을 깨운 김장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온정 나눔에 동참했다.

영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7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김장김치 300포기를 담겨 생활취약계층 70가구에 각각 전달했다.

지사협 위원과 통장단원, 동 직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은 지난 25일부터 한 해 정성들여 기근 배추를 수확하고 김장재료를 함께 후원, 협력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박성락 위원장은 "사흘 간 모은 고맙지 몰라도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김장김치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맛있게 드실 분들을 생각하면 절로 흥이 난다"고 말했다.

왕곡면에서는 새마을 부녀회원들의 분주한 손길이 이어졌다.

왕곡면 새마을부녀회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25일부터 사흘 간 10명씩 봉사인원을 나눠 김장김치 250포기를 장만했다. 광정숙 부녀회장은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이웃 사랑에 동참해준 부녀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십 년 김장 경력의 부녀회원들의 손맛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감동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는 주민들의 나눔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연말연시 복지사각지대 그늘 속 소외감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구체화

## 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통해 최종 당선작 선정

전주 에코시티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길환건축사사무소의 '마실나무'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설계공모 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 과정이 전주시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최승희 우석대학교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는 이날 출품된 2개 작품 제출자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안건토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모티브를 살린 디자인과 에코시티 세병공원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설계를 담은 '마실나무'가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됐다. 이 설계안은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도시와

자연과의 경관적 조화 및 연계를 최우선으로 해 건물 배치 및 조경계획을 한 점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목적에 부합된다"며 "부지 내 문화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테마별 공간설치 계획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말 공사에 착공할 방침이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300여억원이 투입돼 약 1만2000㎡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진다.

센터에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주민 공동체공간, 야호다함게들복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등 주민들의 문화·체육복지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화향유와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킬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성이 본격화됐다"며 "당선작을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광주시, 2021년 인공지능 중심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

이용섭 시장, 27일 2021년 예산안 관련 시의회 시정연설



둘째,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미래 먹거리인 11대 미래전략산업을 적극 추진한다.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1대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1250억원을 투자한다.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을 구축, 광주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등을 추진한다.에너지산업은 189억원을 투자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의료 및 헬스케어산업에는 92억원을 투자해 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지원센터와 시니어코스메틱케어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생체의료용 소재부품산업 기반을 확대한다.더불어 문화콘텐츠산업에 125억원을 투입해 첨단실감콘텐츠큐브 조성, 이스포츠 경기장 운영으로 확장성이 큰 문화콘텐츠산업을 인공지능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광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밖에도 에어가전 공기업, 5G 기반 정보통신기술산업, 스마트뿌리산업, 광융합산업, 김치산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셋째, 도시 곳곳에 광주다운이 묻어나는 품격있는 문화광주를 만든다. 대표문화마와 및 생태문화마을, 상설공연, 광주대표음식 등 광주다운을 브랜드화하는데 117억원을 투입하고 광주역 등 도시재생 뉴딜에 449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 생활SOC사업에 174억원을 투자한다.

정월성신생역사공원 조성, 광주문학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124억원을 투자하고 개방형체육관, 생활밀착형체육센터 건립에 76억원을 투입한다.

넷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확대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본격 나선다.

출생육아수당으로 488억원을 투입

해 내년부터 광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최대 680만원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2280억원을 반영해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구축, 청년부부 난임 건강 검진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이용료를 지원하고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장애인회관, 장애인수련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건립에도 속도를 낸다.

다섯째, 미래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지난해 9월 착공식을 가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3040억원을 반영했으며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차세대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73억원,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도입에 40억원을 반영해 미래 지향적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 확대,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도 58억원을 투입한다.마지막으로 감염병과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광주를 만든다.

코로나19로 소진된 재해·재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711억원 규모의 재난기금을 추가로 마련하고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감염병과 재난 등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용섭 시장은 "2021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로 도약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더 큰 광주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 완도군, 완도 해산물 우수성 입증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11월 25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완도 해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완도 해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우세하나 영양 성분과 맛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기에, 완도의 해양환경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빈 교수팀이 완도 토양과 갯벌의 분포와 암석학적 특성, 해산물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완도 본도와 유·무인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해저가 70~90% 이상 맥반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갯벌 역시 다른 지역과 달리 맥반석의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모래와 펄이 혼합된 혼성갯벌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특히 맥반석은 특성상 정화작용이 우수해 완도 해역의 깨끗한 바닷물에 영향을 주고 있

며 이로 인해 영양염류를 많이 생성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어 완도 해산물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패류의 경우 뼈를 구성하는 칼슘과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마그네슘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바지락과 꼬막은 면역력 증상에 도움을 주는 아연과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함량이 다른 지역보다 풍부했다.꼬막은 신경 안정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바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복과 꼬막은 피로회복과 간 기능 개선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우린 함량이 높았다.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맛의 특징 또한 완도 해산물이 다른 지역 해산물보다 감칠맛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오래전부터 완도의 지반은 초석으로 형성되어 있어 수산물의 영양과 맛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입증됐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어떤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양호/기자

# 해남미남축제, 2020 한국의 축제 공모 우수지역축제 선정

한국경제신문 주최 글로벌 성장 가능성 20대 우수축제에 이름 올려



해남미남축제가 '2020 한국의 축제' 공모에서 20대 우수지역축제로 선정됐다.한국의 축제 공모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캠페인으로 글로벌 축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유망 지역축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대국민 프로젝트이다.

두달여간 걸친 공모와 예선, 본선 심사를 통해 축제 구독영상 경쟁, 축제 특산물 온라인 판매전 등 국민 참여형 예선을 거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종합 평가를 더해 최종 4개 부문 20개 축제를 우수 지역축제로 선정했다.

해남군은 먹거리가 넘치는 맛있는 축제 부문 우수축제로 선정, 해남 농수특산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축제를 지향하는 해남미남축제의 우수성을 평가 받았다.해남미남축제는 지난해 처음 열린 신생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13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으면서 미식축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스마트 축제를 진행, 전국의 보건의료진들에게 해남특산물

로 만든 미남도시락 2020개를 전달하는 한편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1월 2~7일간 열린 축제기간 동안 해남 특산물을 이용한 유명 셰프의 요리대결로 펼쳐진 미남푸드쇼를 비롯해 농수산물 꾸러미를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을 통해 해남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를 소개하는 랜선 해남여행 등이 진행됐다.이를 통해 축제 영상

등에 온라인 방문객 수가 27만 9752명에 달하는 등 비대면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명현관 군수는 "해남미남축제를 스마트축제로 진행하면서 코로나 이후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 새로운 지평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해남미남축제가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축제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영윤/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 양양군, 남대천 순환도로 도심확장 기반 마련

### 양양읍 임천리 임천교~ 연장리 배수펌프장



양양군이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통해 양양읍 시내를 진입하는 주요도로 중 하나인 남대천 순환도로 시내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됐다고 밝혔다.군은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양양읍 임천리 임천교에서 연장리 배수펌프장 2,756m구간에 대해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이다.

최근 양양읍 임천리 임천교~서문교 500m 구간, 양양읍 남포리 양양시장 주차타워~문화복지회관 480m 구간에 대해 폭 3~5m 추가 확포장 공사는 완료하고 마지막구간인 양양읍 북단구간 280m를 연내 마무리해 시내구간 4차선으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19년 1단계 3차선 확장했고 올해 추가로 2단계 시내구간 4차선으로 확포장하게 됐다.

내년엔 3단계로 연장리 배수펌프장에서 낙산대교까지 2.2Km, 20억원을 투입해 3차선으로 확장 및 인

도,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해 남대천 순환도로를 마무리한다.남대천 순환도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개발 수요가 증대된 곳으로 유동인구 증가와 시내 중심도로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내년 군도4호선 송현리~가평리 구간의 도로가 마무리 되면 남대천을 끼고 순환도로로 완성될 전망이다. 송암리 양양종합여객터미널

김영근기자

# 비대면 '강릉 솔바람길 건강걷기 챌린지' 엄지척

주민들이 주최한 '강릉 솔바람길 비대면 건강걷기 챌린지'가 강릉시민 1,123명이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종료됐다.본 행사는 주민들로 구성된 '성덕동 주민건강위원회'가 지난 11월 8일~14일까지 1주일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걷기 방식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진행됐다.이번 걷기챌린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활력과 건강을 충전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행사로서 주민건강자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걷기챌린지 결과를 보면 1주일간 7만 보 이상을 걸은 주민들이 664명이나 됐고 걷기실천율은 84.6%로 2019년 강릉시 걷기실천율 52.1% 대비 32.5%나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 강릉시민의 걷기실천율 향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걷기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은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걷기 행사라서 다소 생소했지만 참여했던 1주일간 정말 재미있게 걸었으면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걷기 코스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좋았다", "코로나19로 방에서 TV와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번 걷기챌린지 덕분에 이젠 매일 걷고 있다", "우리 가족이 이번 걷기 챌린지로 화목하게 됐다" 등 다양한 생각을 모바일 앱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이재호 위원장은 "처음에 이 걷



기 챌린지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많으면 3~4백명 정도 참여할까라 예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걷기 챌린지를 진행했던 주민건강위원들이 더 행복해했다"며

"내년에도 마을 공모사업에 응모해 예산을 마련해 걷기 챌린지를 계속 추진해 주민들이 걸으면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한 힘을 얻어 일상생활을 회복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춘천, 스마트 그린도시 꿈꾼다

### 지하수가 미세먼지 안심존 및 탄소중립 친환경 공원 등 사업 계획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나서고 있는 춘천시정부가 스마트 그린도시를 꿈꾸고 있다.시정부는 오는 30일 환경부가 공모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은 기후와 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지자체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그린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공모 선정을 위해 시정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시청 중앙로를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주요 사업은 '미세먼지 안심존 조성' '탄소중립 친환경 공원' 'ICT 기반 쿨링&클린로드' '스마트 그린로드 조성'으로 사업비는 총 100억원이다.공모에 앞서 시정부는 지난 11월 17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시민

주권위원회, 춘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같은 달 24일 이행협약체를 구성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특히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을 위해 두 차례 걸쳐 숙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며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이와 함께 시정부는 폭염, 미세먼지, 도시 열섬화 등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쿨링&클린로드 조성, 1억 그루 가로수 식재, 약사천수변공원 도심도랑, 물터널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작성했다.시정부 관계자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시정부 2대 핵심 목표중의 하나인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청정대기 및 기후 회복력이 강한 기후탄력 도시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강원도산 옥수수 보급중 신청으로 내년 농사 준비하세요

진천군농업기술센터는 강원도산 옥수수 보급중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옥수수 보급종은 찰옥수수 3종, 종실사료용 2종과 팝콘용 1종 등 총 6종이다.찰옥수수 미백2호는 전체가 백색이며 찰기가 좋아 씹는 맛이 좋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하다.미혹찰은 전체가 검은색인 품종으로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돼 있는 품종이며 후작2호는 검정과 백색이 혼합된 얼룩무늬옥수수다.

종자는 1kg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공급가격은 1kg당 찰옥수수 3종 2만 6천원, 유평팝콘 3만 5천원, 종실사료용은 2kg당 2만 1천원이다.

옥수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종자소요량이 약 2kg/10a인 것을 감안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보급종은 내년도 1월 6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 공급이 될 예정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이번에 보급하는 옥수수 종자는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보존돼 품질이 우수하다"며 "특히 미백 2호는 공급 가능량이 적으니 희망 농업인은 서두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 문정우 금산군수, 내년 명품관광 전환점 마련 방안 제시

문정우 금산군수는 제278회 2차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격변하는 시대 금산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긍정 목표를 '위기 속의 기회, 다 함께 잘사는 금산'으로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금산 관광산업 전환 마련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 경제 실현 미래 장기비전 전략 수립 건강하고 행복한 금산 만들기 미래인재 육성 문화·예술·체육 복지 증진 선진농업 기틀 마련 지역 균형 발전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 소통하는 선진행정 마련 등 10대 목표를 밝혔다.문 군수가 밝힌 2021년 군정비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산 관광산업에 대해 내년 제40회를 맞는 금산인삼축제 개막식에서 금산군 관광진흥 비전을 선포하고 찾아오는 명품관광의 이수와와 금산 관광의 위상을 고취할 방침이다.방우리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 스토리가 있는 돌래길 조성, 금산전 관광 명소화 사업, 금산전·봉황전 내 대규모 꽃단지 조성 등 금산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금산만의 자연친화적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경계 분야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산 사랑상품권의 유통 구조를 개선해 지역 내 소비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이외 한 국타이어 사원아파트 기부채납을 통한 근로자 기숙사 조성 및 한방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도 추진 중이다.급변하는 시대에 대해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군의 미래 장기비전 및 전략계획을 수립해 행정과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하고 중앙과 도의 본격 이전 계획 수립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군민 건강에 대해서는 포스트코 로니를 대비해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리적·신체적 불편 등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고령 위기에 놓인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이외 상시 돌봄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복지관·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다문화가정 지원, 어르신 기본 경제활동 및 돌봄 서비스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2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인재육성 장학금을 내년 조기 달성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으로서의 재능을 키우는 장학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입 1:1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해 교육의 정보 격차 해소도 목표로 한다.군은 올해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의 대규모 리모델링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시설을 갖췄으며 이에 걸맞는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변화하는 문화·공연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비대면 공연 영상 플랫폼 품 구축, 찾아가는 시네마 버스 운행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접근기반을 마련한다.지역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교육, 공연, 체험 등 콘텐츠도 다양화해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인 계승에 나선다.인삼약초산업의 세계화, 명품화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금산인삼약초연구소의 기능을 개편한 금산인삼약초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식품산업 표준화 지원 등을 통해 선진농업의 기반 확대에 무게를 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해서는 인삼 포장 및 거래 단위를 규격화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투명한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간다.지속적 인구감소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대해 구 읍지 병원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 인프라 조성, 일자리, 문화, 건강,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금산행복드림센터로 조성도 추진한다.이외 스마트 공영 주차장, 워터 조성 등을 통해 주민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금산중·하곡초 일원의 지역공동체 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추진하며 수남지역에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금산 복합생활커뮤니티 사업도 마련된다.하천범람과 제방유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평가사업과 금산지구 풍수에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등도 추진된다.이외 상시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등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노후 상수도 시설 현대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해 힘쓴다.온택트 시대 주민 참여 정책구상 트렌드에는 행정과 주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형 소통창구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정보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안내도우미, 고충민원 상담, 진행 상황 문자 통지서비스 등도 진행된다.또한 마을 경로당 내 주민정보 알림시스템 구축하며 읍면 이장회의를 통한 군정발전 주민여론 수렴도 계획됐다.문정우 금산군수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의연하게 헤쳐나가고 격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해 '다 함께 잘사는 금산'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군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기회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공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대응

### 1.5단계 준하는 관리지침 수립...수능 전까지 비상체제 돌입

공주시가 푸르메요양병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7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고 요양병원 관련 공주시 확진자가 총 34명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관리 지침을 수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당분간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일규규모 이상의 공식·비공식 행사를 전면 연기토록 하고 특히 12월 3일 수능 때까지 코로나19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요양병원 제2, 3병동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 환자를 격리할 공주유스호스텔도 110실로 확대 운영기로 하고 필요한 병상은 공주의료원과 천안의료원, 국립공주병원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2, 3병동 환자들에 대한 이송은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시는 환자들을 돌볼 자체 의료진을 구성해 긴급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체확보 37명 - 의사 4, 간호



사 11, 간호조무사 2, 간호인 20이기에 따라 일반진료와 보건증 발급 등 시 보건소 업무는 상황 종료 시까지 당분간 중단된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요양병원 등 48개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1:1 모니터링을 12월 초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섭 시장은 "푸르메요양병원



# 전북도, '이달의 혁신주인공' 축산과 김형배 주무관 선정 오도창 영양군수, 2021년 예산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도내 24개 농가 179억 보상액 확보, 농가생계 안정에 기여

전라북도 축산과 김형배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클라쓰가 남다른 이달의 혁신 주인공'의 7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매월 다른 주제로 '클라쓰가 남다른 이달의 혁신 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는 조직문화 개선, 적극적 업무자세 등 자유주제로 '이달의 주인공'을 선정했다.

11월의 주인공은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전라북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으며 접수된 후보 중 심사를 통해 김형배 주무관이 최종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국가간 무역장벽을 완화한 FTA 협정으로 피해를 본 도내 축산농가를 위해 도 축산과, 새만금수질개선과 및 안산시 축산과, 환경정책과와 FTA 폐

업보상과 현업축사 매입사업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김 주무관은 FTA 폐업 보상 대상에 익산 왕궁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허가 축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익산 왕궁 양돈 단지 4개 마을 양돈농가 100호를 대상으로 FTA 폐업에 필요한 조건을 설명하는 개별 컨설팅을 진행해 8개 농가가 추가로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도내 총 24개 농가 179억원의 보상액을 확보해 도내 농가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도는 주인공인 김형배 주무관에게 최훈 행정부지사가 직접 부서를 방문해 기념선물과 동료 직원 명의의 상장을 수여했고 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격려의 의미로 해당 부서에 간식을 지원했다.

이달의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김 주무관은 "가족질병방역 및 현업업

무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상 업무 담당자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 생계안정과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를 위해 농식품부와 적극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폐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김 주무관의 헌신과 노력이 널리 알려져 적극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확풍 공무원'을 찾아 격려하는 '클라쓰가 남다른 이달의 혁신 주인공' 12월 주제는 '도정혁신'으로 혁신과제 발굴 및 운영, 경진대회 참여 등 혁신관련 업무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송일기자

## 농가소득 창출, 군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오도창 영양군수는 11월 27일 열린 제265회 영양군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올해 주요 성과와 함께 농가소득 창출기반 조성, 군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1년도 군정 운영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오도창 군수는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피해로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군민들이 잘 참고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0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분소 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LPG 배관망 구축사업 준공, 영양소방서 신설 확정,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소 개소, 동·하계 전지훈련의 성공적 유치, 인도어 골프연습장 개장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와 식품안전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영양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군구 특화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 수상 등 대외적인 성과와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과 임산물 카페 유유자작 조성사업 선정, 새뜰마을 사업 선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등의 각종 국·도비 확보에서 보인 성과를 바탕으로 영양군 민선 7기가 2021년도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도창 군수는 "영양군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위해 획기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농업 분야를 발굴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농환경의 트렌드를 반영해 건강한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신성장동력 발굴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부자농촌 만들기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영양의 생태문화관광지 조성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가치를 높이는 행복한 삶터 조성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군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영양군의 2021년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으로 정했다. 영양군이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4.4% 증가한 3,14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842억원, 특별회계는 299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농림분야에는 594억원, 매력있는 영양을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 및 환경분야는 572억원, 소외된 이웃을 살피기 위한 사회복지분야는 54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94억원, 일반행정분야 282억원, 보건·의료분야 85억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경제분야 60억원, 기타 및 예비비부문에 511억원을 책정했다.

오도창 군수는 "2021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경제활성화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분배해 편성했다"며 "민선 7기 군정이 변화의 열매가 결실을 맺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5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변화의 시작에서 변화의 완성이 가는 행복영양의 길을 이루겠다."

아울러 영양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군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당부와 함께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최만식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언론인협회 행정대상 수상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26일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행정대상은 경기도민과 시·군민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언론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제정됐다. 올해 지자체장 수상자로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영태영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04년 정지에 임명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홍보행정관을 비롯해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두루 쌓아왔으며 지난 2018년 제13대 시흥시장으로 취임해 현재 새로운 시흥을 열어가고 있다. 이번 수상에서는 올해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위기에 현장에 천막시장실을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제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020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지자체 선정, 신안산선, 월곶-관교선 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지역 주도 도시개발을 위한 시흥도시공사 출범, 전국 최초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구축, 전 시민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교육주도성장도시 실현 등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임병택 시장은 현재 월곶에서 시화MTV 거북섬까지 이어지는 15km 수변을 K-골든코스트로 조성하며 시정 후반기 청사진을 실현하고 있다. K-골든코스트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월곶



국가어항과 오이도 지방어항 사업이 추진 중이며 서울대 시흥캠퍼스 1단계 사업 완료,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설립 협약 체결, 시흥서울대치과병원 설립 협약 체결,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지정, 세계 최대 인공서핑파크 시흥 웨이브파크 개장,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추진, 시흥스마트허브 스마트산단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임 시장은 관광과 문화, 레저, 첨단산업이 집약된 K-골든코스트 구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고 50만 대도시 진입을 준비하며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목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일궈온 시민과 동료 공직자를 대신해서 받는 것"이라며 "오늘의 이 상을 거울 삼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흥을 구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정무기자

## 무안 현경 김양정 씨, 국민행복 IT경진대회 '은상' 수상

무안군은 2020 국민행복 IT경진대회에서 현경면 오류리에 거주하는 김양정씨가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8주년을 맞이하는 2020 국민행복 IT경진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원과 17개 시도에서 주관하며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경진대회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지역예선을 거쳐 지난 11월 12일 지역별 거점시험장 16곳에서 본선대회를 치렀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고령층, 장년층, 결혼이민자, 디지털 챌린지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활용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등 그동안 같고 닮은 디지털 역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결과 본선 진출자 327명 중 62명이 최종 입상했다. 그 중 무안군은 2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고령층 부문에서 무안군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는 김양정씨가 은상을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화 교육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그동안 우리군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 하동 대송산단 공영개발 전환...기업유치 탄력

### 하동군, 군의회 시설용지 17만㎡ 매입 450억원 승인...단독 사업시행 추진

그동안 PF 자금 상환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단단지 조성사업이 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으로 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공영개발 전환과 함께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게 됐다. 27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날 열린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대송산단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450억원 상당의 부지 17만 4900㎡ 매입을 위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대송산단은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분할설적이 미미해 지난달 23일까지 상환해야할 추가 PF자금 450억원을 갚지 못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하동군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군이 직접 개발하고자

450억원의 상환을 위해 지난 9월 16일 열린 제293회 군의회 임시회에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당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10월 1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도 보류 결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음날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군의회는 이와 동시에 같은 날 본회의에서 450억원의 예산 집행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 수경예산안에 반영해 당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함께 통과시켰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하동군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산단 분양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대송산단 내 입주할 수 있는 유치업체도 기존 금속가공제품제조업과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2층에서 식료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

업, 1차금속제조업, 기타발전업 등 4종이 추가돼 총 6종으로 지난 18일 확대 고시돼 산업단지 분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은 하동군이 단독 사업시행자로 가기 위한 시작점으로 향후 1810억원을 상환해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450억원 상당 즉시 SPC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이전받고 관련법에 따른 SPC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조속한 사업준공을 위해 토석반출은 물론, 교량재시공, 폐수처리시설 조기 착공 등을 조급히 완료하고자 행정 절차 이행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의 고심과 결단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됨으로써 PF자금 상환을 통한 공영개발 전환으로 기업유치는 물론 사업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 및 한국판 뉴딜 국제사회 공유

###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업기술혁신위원회 고위급 화상회의 참석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산업기술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20:00~21:30 '코로나19 정책대응 평가 및 향후 경제회복 방향'을 주제로 고위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이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4개국 고위급 국가자를 토론자로 초대했으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해 한국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윤 차관보는 회의 첫 번째 순서인 '그간 코로나19 관련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첫 번째 선도 발언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킨 한국의 두 트랙전략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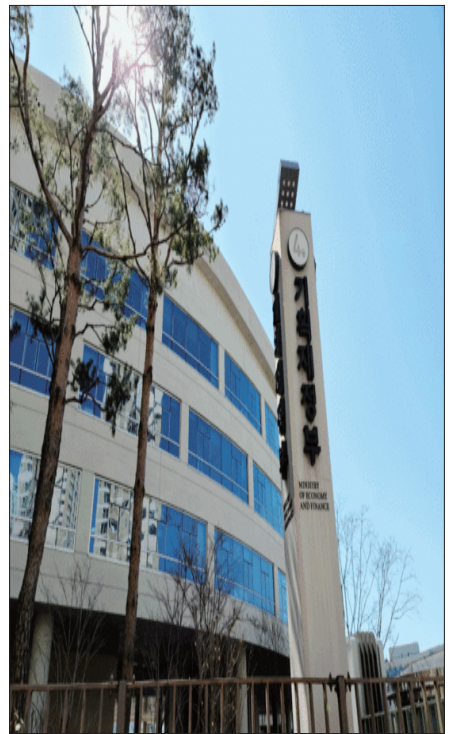
우선 한국은 '방역이 곧 백신'이라는 기조 아래 4T+P 방역대응모델 즉, 진단, 역학조사, 치료, 투명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생활

화 한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대비태세를 구축했고 또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310조 원에 달하는 직접 지원정책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두 번째 주제인 '향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답대안 국가 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면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디지털 및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국제사회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 및 자유무역 질서 복원은 각 국 및 세계 경제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윤기자



# 인체삽입 의료기기용 나노발전소자 등 10대 나노기술 발표

### 2020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나노기술 산업 유공자에 장관표창

'인체삽입 의료기기용 나노발전소자 기술', '전기자 효율 향상을 위한 나노발전소자 기술' 등 2020년도 10대 나노기술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 나노융합성과전'을 2020년 11월 26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동 성과전은 올해 9회째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나노기술인 50여명이 참석해 2020년도 10대 나노기술 발표,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행사규모를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했다. 나노분야 기초원천기술·산업화유망기술에 대해 전문가심사·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올해 10대 나노기술 중 대표기술 2건을 선정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초음파로 유도되는 정전기로 발전과 충전이 가능한 '나노발전소자 기반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충전 기술'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위한 '나노탄소 기반 고효율 발열소재 및 유연 필름히터 기술'태라온 김윤진 대표) 그간 나노융합 신기술 및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

로 서울대 김진영 교수, 세종대 이내성 교수, 국가나노정책센터 김

준현 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오재섭 책임연구원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LG화학 김세현 팀장, ㈜코삼마 김기복 대표, 포항공과대학교 강민식 교수, 한국산업기술개발관리원 최지섭 선임이 산업부 장관

표창을, 그밖에 나노영월린지 2020 최우수상 수명여대 이다진 학생, 나노소자 콘테스트 최우수상 전북대 임태권 학생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장을 수상했다. 나노소재 전문기업인 대주전자재료 오성민 전무는 '배터리시대, 나노융합소재의 발전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나노융합 기술은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상호 협력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이며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분야이다"고 하면서 "내년 초 수립 예정인 '제5기 나노기술융합발전계획' 마련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정책시행 과정에서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10대 나노기술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중심에서 바이오·에너지·환경 등으로 활용분야가 확대되는 나노기술이 한국형 뉴딜, 탄소중립 추진, Big 3 산업 육성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 북면 일원 생태하천 조성공사 착착

가평군이 최근 1년간 관내 계곡 및 하천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자리에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불법이 난무했던 생태하천이 새로운 모습을 태어나면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군에 따르면 관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생태하천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북면 제령리, 도대리, 적목리 일원에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금년 2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 우선 시범 정비사업'분야 1위에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는 3대 주요사업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된다.

먼저 제령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구 목동초 폐교를 리모델링해 가평천 방문객의 생태관광 배이스캠프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특성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반영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수변공간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대리 생태환경 조성으로는 구 도대리분교 폐교를 주변 3개 마을이 북면 가평천 생태관광 네트워크의 허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 체험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방문객 집

중 관광지인 용소폭포의 접근성 및 편리성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적목리 환경정비 사업에는 경기도 최고봉 화악산에 있는 가평천 발원지 일대에 친환경적 접근 시설을 조성해 생태관광 편의성 증대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고 가평천 최상류 계곡 일대의 오염원 배출예상시설을 통해 친환경 생태하천의 기초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돼 자연과 사람을 잇는, 생태보전과 소득을 잇는, 도시와 농촌을 잇는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가평천 불법시설 정비 이후 지역의 위기를 경기도 생태관광 1번지 탄생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기초 편의시설 생활SOC 구축을 통해 주민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청주시가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정수 캠퍼스에서 열린 2020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통합성과 공유대학의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 자치단체 부문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고 성과공유 우수사례 발표만 비대면으로 진행돼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됐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이 상은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에 추진한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평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회적기업 발굴성과, 일자리창출 성과, 건전한 사회적기업 육성 4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그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 사회적기업 홍보관매관 운영,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및 창업 활성화 교육, 사회적기업 영상 광고 홍보 등을 실시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이외에도 지난 2년간 사회적기업 48곳을 발굴해 현재 청주시에 118곳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32억원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584명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주력했다.

시 관계자는 "2021년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서비스 확충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 시민행복 도시미래

스마트시티 구축,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영주택건설 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미래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작됩니다.

[www.duco.or.kr](http://www.duco.or.kr)

 대구도시공사

